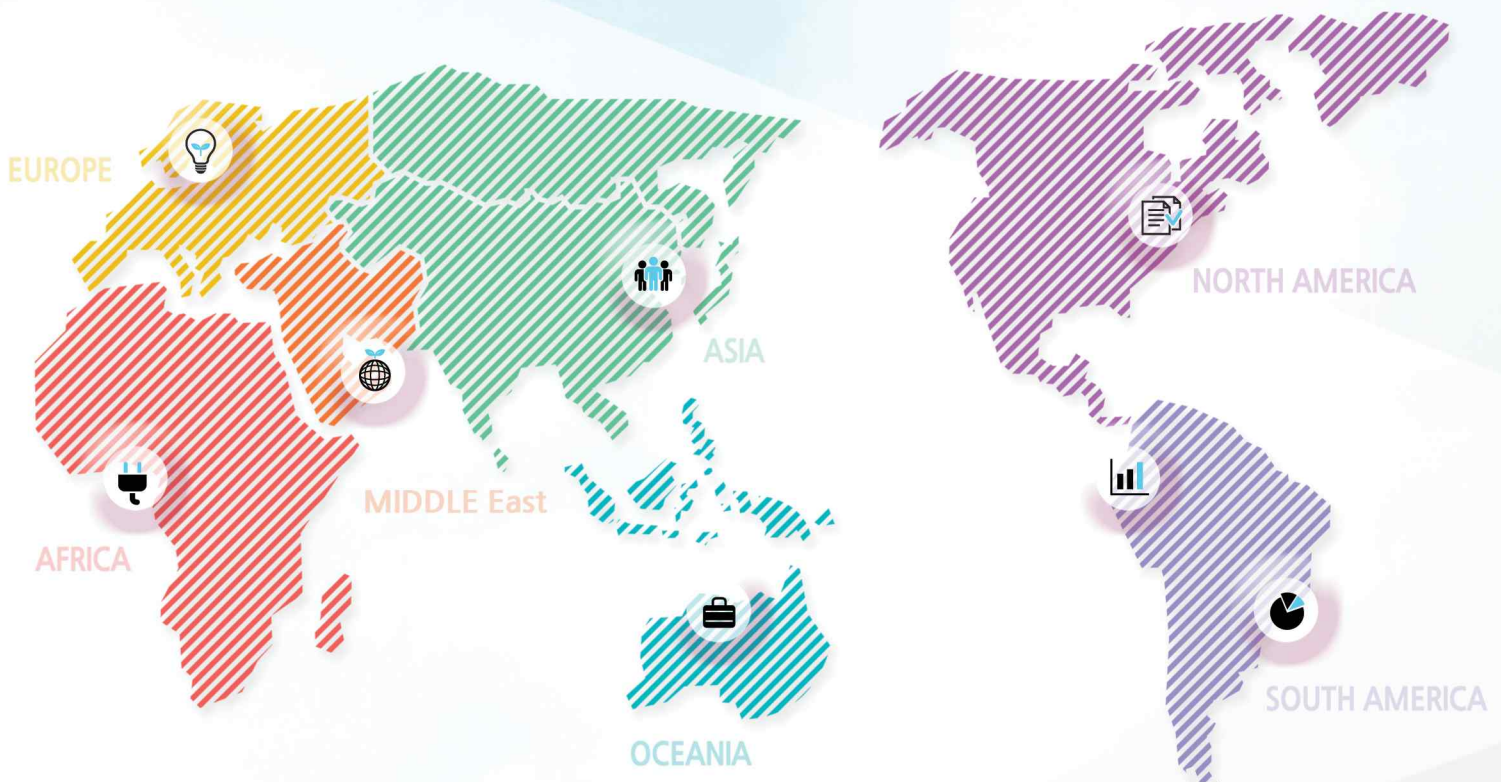




한-중미 FTA와 우리기업 진출기회

CONTENTS

목 차

요 약

I. 중미 6개국 현황 / 1

- | | |
|----|---------------------|
| 1 | 1. 중미 6개국 전체 경제현황 |
| 5 | 2. SIECA 주요정보 |
| 10 | 3. 중미 6개국 개별 경제현황 |
| 27 | 4. 한국 對 중미 6개국 교역현황 |

II. 우리기업의 진출기회 / 32

- | | |
|----|-----------|
| 32 | 1. 수출유망상품 |
| 48 | 2. 진출유망분야 |

III. 시사점 / 50

요 약

- 중미 6개국은 최근 적극적인 역내경제통합과 대외경제개방정책을 통해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음.
 - 2013년 기준, 6개국 전체 GDP 1,971억 달러 규모, 총 인구 4,500만 명의 시장으로 공동시장을 목표로 경제통합 가속화
 - 2013년 기준, 전체 교역규모는 1,083억 달러 규모로 최근 10년간 교역규모 2배 증가
 - 주로 농산물과 섬유를 수출하나 코스타리카는 산업구조 개혁으로 반도체 등 수출
 - 역내 교역비중 낮고, 교역품목 유사해 적극적 대외개방정책 추진 중
- 중미 6개국 주요 수입품목, 우리 주력 수출품목과 일치하여 FTA체결 시 효과 클 것으로 기대
 - 중미 6개국의 주요 수입품목은 자동차, 휴대폰, 의약품, 전자기기 등으로 우리 주력 수출품목과 일치,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로 FTA 체결 시 수출확대 기대
 - 주요 교역품목 간 민감품목이 없어 상생협력의 FTA가 될 것으로 전망
 - 중산층 성장과 경제발전계획 추진에 따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자동차 및 부품, 휴대폰, 건설자재, 의료기기, 식음료품 등이 관세 인하 시 유망품목으로 꼽힘.
 - 관세 인하로 품질 인지도가 높은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 강화 시 우리 제품 수입 원하는 바이어 다수
 - 최근 각국의 경제발전계획 추진에 따라 우리기업에 경쟁력이 있는 사회인프라 건설, ICT, 개발협력 분야가 유망분야로 부상하고 있음.
- 중소기업에 적합한 시장 환경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
 - 적극적인 대외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평균 3% 수준의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지역으로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중소기업의 테스트 마켓이 될 수 있음.
- 수출부진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미 6개국 시장을 새롭게 인식하고 제품개발과 차별화된 서비스 공급으로 성과창출을 모색해야함.

I 중미 6개국 현황

1. 중미 6개국 전체 경제현황

□ 시장현황

- (경제규모) 2013년 기준, 6개국의 GDP는 1,971억 달러로* 지난 10년 간 2배 가까이 성장, 회원국 중 과테말라(539억 달러), 코스타리카(492억 달러), 파나마(404억 달러) 3개국이 전체 GDP의 약 72%를 차지함.
- 6개국의 경제규모는 루마니아, 페루, 카타르 등과 유사하고 베트남을 상회
 - * 우리나라 GDP의 15%수준
 - * 국별 GDP(US\$) : 루마니아 1,916억, 페루 2,024억, 카타르 2,032억, 베트남 1,706억
- (1인당 국민소득) 2013년 기준, 평균 5,400 달러 수준이나 국가별 편차가 큰 편
- (인구) 2013년 기준, 6개국의 전체 인구는 4,462만 명으로 중남미 국가 중 3위이며, 과테말라(1,548만명)를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은 인구 1,000만 명 미만의 소국

<2013년 중미 6개국 경제현황>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인구(천명)	15,482	6,146	6,325	8,098	4,713	3,851
GDP(억달러)	539	108	243	185	492	404
1인당GDP(달러)	3,478	1,764	3,835	2,284	10,447	10,490

자료원 : IMF

- (산업구조)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는 농업 및 섬유·봉제업 중심 구조이며, 파나마는 물류, 유통, 건설 산업 중심 구조
 - * 코스타리카는 산업구조 개혁을 통해 전자제품, 반고체, 의료기기 등 수출

□ 중미 6개국 교역현황

- (교역현황) 2013년 기준, 중미 6개국의 전체 교역규모(역내 및 역외)는 1,083억 달러로 2005년 이후 수출규모 약 2배 증가했으나 수입규모도 2배 가까이 증가하며 무역수지 적자구조 지속
- (수출) 2013년 기준, 중미 6개국의 수출액(역내 및 역외)은 343억 달러로 201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수출 급증세
 - * 코스타리카(217.2%), 니카라과(189.1%)의 수출은 급증했으나, 파나마(8.7%), 엘살바도르(17.2%)의 수출 증가율은 부진

<중미 6개국의 수출액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증가율(2010-2014)
코스타리카	9,449	10,408	11,459	11,478	217.2
과테말라	8,604	10,549	10,138	10,196	23.5
니카라과	1,852	2,266	2,678	2,401	189.1
온두라스	2,819	3,959	4,391	3,926	89.7
엘살바도르	4,499	5,310	5,340	5,491	17.2
파나마	749	779	834	829	8.7
합 계	27,972	33,271	34,840	34,321	105.2

자료원 : 한국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수입) 2013년 기준, 중미 6개국의 수입액(역내 및 역외)은 740억 달러로 2010년 대비 32% 증가

<중미 6개국의 수입액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증가율(2010-2014)
과테말라	13,866	16,643	17,027	17,550	23.3
코스타리카	13,568	16,216	17,567	18,121	18.5
파나마	9,049	11,328	12,708	12,785	50.2
엘살바도르	8,416	9,963	10,268	10,760	24.9
온두라스	7,128	9,017	9,385	9,152	43.5
니카라과	4,183	5,202	5,854	5,625	58.6
합계	56,210	68,369	72,809	73,993	31.9

자료원 : 한국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교역비중) 2013년 기준, 6개국 중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3개국이 전체 수출액의 75%, 수입액의 68% 차지
- (주요 교역품목) 2013년 기준, 수출품은 농산물, 반도체, 의료기기, 수입품은 석유, 의약품, 휴대폰 등
 - * 반도체, 의료기기 등은 코스타리카에서 수출

< 2013년 중미 6개국 주요 교역품목>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수출품목	수출액	수입품목	수입액
1	커피	2,447	석유	9,427
2	반도체	2,397	의약품	1,820
3	바나나	1,787	휴대폰	1,485
4	의료기기	1,132	승용차	1,357
5	티셔츠류	1,014	반도체	1,734

자료원 : International Trade Centre

- (FDI) 각국의 적극적인 해외투자 유치정책에 따라 2005년 이후 2013년 까지 약 3배 규모 증가, 2013년 해외투자유입액 107억 달러규모

□ 중미 6개국 역내 교역현황

- (역내교역품목) 대부분이 의약품 및 식료품 등으로 교역의 상호의존도 낮음.
 - 한국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기계, 전자, 석유화학 제품 진출 시 역내교역구조를 상호보완 할 수 있어 수출 확대 기대

< 2013년 중남미 6개국 역내 주요교역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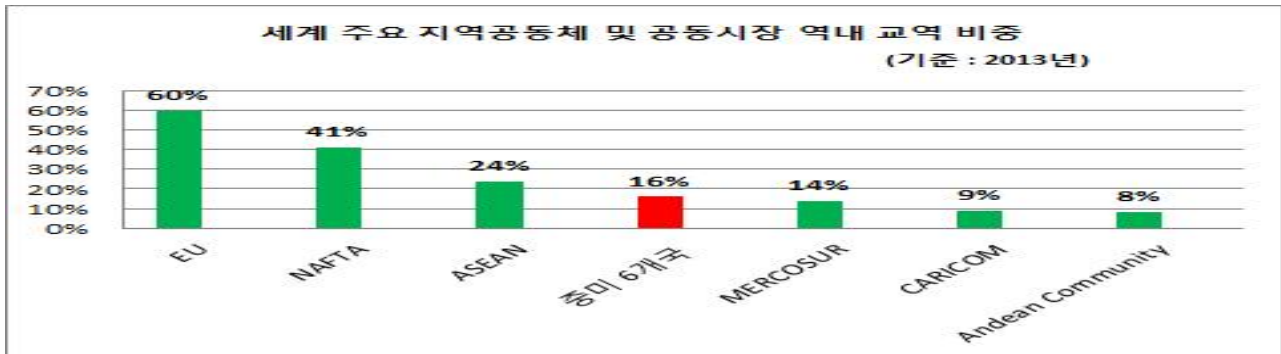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수출품목	수출액	수입품목	수입액
1	의약품	2,447	플라스틱포장재	9,427
2	플라스틱포장재	2,397	빵류	1,820
3	빵류	1,787	의약품	1,485
4	식료품	1,132	음료수	1,357
5	음료수	1,014	식료품	1,734

자료원 : International Trade Centre

- (역내교역현황) 2013년 기준, 중미 6개국의 역내교역총액은 152억 달러
 - 역내교역비중 16%로 EU, NAFTA, ASEAN에 비해 낮으나 CARICOM, Andean Community, MERCOSUR에 비해 높음

<세계 주요지역공동체 및 공동시장 역내 교역 비중>



자료원 : International Trade Centre

□ 중미 6개국의 중요성

- 중남미 지역 인구규모 3위(4,462만 명), GDP규모 8위(1,971억 달러)*의 시장
 - * 2013년 기준
 - * 중남미 인구 순위 (명): 1위 브라질 (2억 133), 2위 멕시코 (1억 1,839), 3위 콜롬비아(4,721만)
 - * 중남미 GDP규모 순위 (US\$):1위 브라질(2조 3,910억), 2위 멕시코 (1조 2,623억), 3위 아르헨티나 (6,221억), 4위 콜롬비아(3,784억), 5위 칠레(2,766억)
- 적극적 해외투자 유치 정책 추진
 - 각 회원국이 빈곤 탈출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대외수출활성화정책과 더불어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정책 추진 중
- 중미통합체제(SICA)의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 회원국 6개국으로, 역외 공동관세, 역내무관세 실시하며 역내 경제발전 및 경제통합 역할 수행
- 미국, EU 등 주요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
 - 최근 미국, EU 등과 FTA를 체결해 이를 활용하여 주요시장 진출의 길목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2. SIECA 주요정보

□ 기본정보

○ 개요

- 명칭 : 중미경제통합사무국 (SIECA)*

* Secretaria de Integración Económica Centroamericana

- 소재지 :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 회원국 : 6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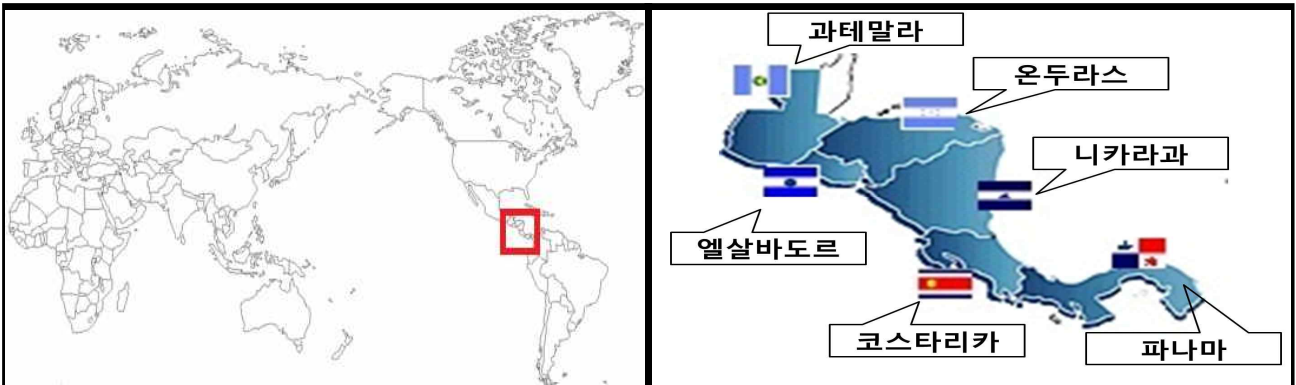
*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2010년 가입)

○ 주요조직 : 사무국장 (Secretaría General)

- 중미경제통합각료회의에서 선출 (임기 4년)

- 경제통상각료회의(COMIO) 결정사항 이행 총괄

* 現 사무국장 : Carmen Gisela Vergara (파나마, '13.7.15 취임)



□ 출범배경 및 연혁

- 중미연방 출신 5개국, 지속적인 지역통합 추진, 1951년 10월 14일 중미기구 (ODECA, Organización de los Estados Centroamericanos)* 설립

* 영문명 OCAS (Organization of Central American States)

- 1960년대 역내 경제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와 수입대체 산업화 정책 추진
 하며 1960년 12월 13일, 관세동맹인 중미공동시장(MCCA, Mercado Comun Centroamerica)* 설립, 추진 실무기구로 SIECA 창설
 * 영문명 CACM (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 1969년 엘살바도르-온두라스 전쟁발발, 1970년대 내전 지속, 특정국가로의 무역혜택 집중*에 따른 무역분쟁 확대로 역내통합 사실상 중단
 * 산업화 앞선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등에만 혜택집중 되며 무역분쟁 심화
- 1990년대 냉전종식, 중미지역 안정화, WTO 출범과 지역 블록화의 확산 추세에 따라 중미국가들도 지역통합 통한 국가발전전략 재추진하며 경제통합 업무 담당기관으로 SIECA 지정

<SIECA 연혁>

시 기	내 용
1823	○ 중미지역국가 5개국* 중미연방결성 *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1838	○ 중미연방 해체 (중미 5개국 독립국가 설립)
1951.10.14	○ 중미지역통합을 위한 중미기구(ODECA)설립
1960.12.13	○ 중미경제통합기본조약 (General Treaty of Central American Economic Integration) 체결 ○ SIECA, 중미공동시장(CACM) 추진 실무기구로 창설
1961.7.4	○ 중미경제통합기본조약(General Treaty of Central American Economic Integration) 발효
1985	○ 중미 세관 및 관세체제에 관한 협정 체결
1991.12.13	○ 중미통합체제(SICA) 설립 ○ 경제통합업무 담당기관으로 SIECA 지정
1993.2.1	○ SIECA, 중미경제통합과정의 기술행정조직으로 발족 ○ 회원국 :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2010	○ 파나마 정회원국 가입

□ 설립목적

- 중미지역 경제발전 및 역내경제통합 과정상의 기술·행정업무 보조
 - 관세동맹 완성과 중미공동시장 실현을 통해 성공적인 역내 경제통합으로 중미지역의 경제발전과 세계경제체제로의 안정적인 편입을 지원함.

□ 주요기능

- 경제통합 자문 및 연구
 - 경제통합관련 법적 자문, 관련기관의 의뢰 연구과제 수행 및 협조, 중미경제통합 각료회의 개최위한 자료, 의제, 방안 제공 등
 - 관세, 미국-중미-도미니카 공화국 FTA(CAFTA-DR), 원산지규정, 역내 무역 분쟁 등 역내 주요이슈 및 관련 보완 사항에 대한 연구조사, 통계자료 및 보고서 작성 등
- 경제통합 관리 및 감독
 - 중미공동시장(CACM)의 대외공동관세제도 관리 및 회원국의 경제통합관련 합의사항 이행여부 감독

□ SIECA 회원국 경제통합수준

- 역내 관세, 비관세 장벽 철폐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공동시장을 추구하고 있으나 회원국 간 경제력 차이, 주요 기구 간 이견으로 달성에는 장기간 소요 예상
- 역외공동관세
 - 2001년 2월부 역외공동관세 실시, 2007년 중미관세동맹창설 기본협정 타결
 - 현재 중미공동관세체계 (SAC: Sistema Aranceria Centroamerica) 적용

- 회원국별 상이한 입장에 있는 일부품목에 대해 관세조정재량권을 인정하여 공동관세적용 유보하고 있으며 회원국별 세이프가드 적용 허용

<2014년 SAC 관세범위>

품목	내용	관세율	비고
품목 1	살아있는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0-15%	
품목 2	채소류 및 식물성 생산품	0-20%	팥30%, 쌀23.7%
품목 3	동식물성유지	0-15%	
품목 4	조제품, 주류 및 담배	0-15%	설탕/담배 20% 와인 30% 맥주/럼/에틸알코올40%
품목 5	광물	0-15%	
품목 6	화학공업생산품	0-15%	
품목 7	플라스틱과 고무	0-15%	
품목 8	원피, 가죽, 모피	0-15%	
품목 9	목재 및 조물재료	0-15%	
품목 10	펄프 및 인쇄물	0-15%	
품목 11	섬유, 의류	0-15%	
품목 12	신발, 모자 및 인조제품	0-15%	
품목 13	시멘트, 도자, 유리	0-15%	
품목 14	귀금속	0-15%	
품목 15	철강 및 비금속	0-15%	
품목 16	보일러, 전자기기, TV	0-15%	
품목 17	차량, 선박, 교통	0-15%	
품목 18	광학, 의료, 시계, 악기	0-15%	
품목 19	무기	15-20%	
품목 20	가구 및 완구	0-15%	
품목 21	예술, 골동품	5-10%	

자료원 : SIECA

○ 역내 무관세

- 2001년 2월부 역내 회원국 간에는 무관세 실시 중이나 커피, 사탕수수, 에틸알코올, 증류주, 석유제품 등 일부품목은 역내 무관세 적용 제외

○ 역내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 자연인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2006년 중미자유통행협정으로 국경통과절차 간소화

□ 최근동향

- CAFTA-DR(중미-도미니카 공화국-미국 FTA) 발효
 - 2007년 3월, CAFTA-DR 발효에 따라 미국산 공산품 및 소비재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무관세 적용예정
- 원산지 규정 일부 개정
 - 2009년, 역내에서 생산되어 역외국가 경유하여 재수입되는 제품에도 역내 원산지로 인정하도록 원산지 규정 개정
- 중미 관세정보화 서비스 개통
 - 2010년 4월, SIECA 회원국 간 수출입 및 역외생산물 수입 시 필요한 통관서류, 규정, 품목 분류, 관세율 등에 대한 통합정보 제공
- 파나마 SIECA 회원국 가입 승인
 - 파나마는 1993년부터 비회원국 옵저버 국가로 참여해왔으나 2010년 SIECA 정회원국으로 가입
- EU와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s) 체결
 - 2013년 12월 EU와 지역 대 지역 차원의 제휴협정 체결, EU가 중미관세동맹 구축을 요구하여 중미지역 통합 가속화 기대
 - EU-SIECA 회원국 간 교역규모 증가 예상

3. 중미 6개국 개별 경제현황

□ 과테말라

○ 경제현황

- (인구) 2013년 기준, 1,548만 명으로 역내 최대 규모, 중미 6개국 전체 인구의 약 35%를 차지하며 인구성장률도 2.4%로 역내 최고
- (GDP) 2013년 기준, 538억 달러로 역내 중 최대 규모이며, 1인당 GDP는 3,478 달러로 역내 4위, GDP 성장률은 3.7%로 역내 3위 수준
- (물가상승률) 2013년 기준, 4.3%로 최근 3개년 간 3~4%대 유지
- (주요산업) 설탕, 섬유·의류, 가구, 화학, 석유, 금속, 고무, 관광산업

<2013년 과테말라 경제현황>

인구(천명)	15,482
GDP(억 달러)	538
1인당GDP(달러)	3,478
GDP성장률(%)	3.7
물가상승률(%)	4.3

자료원 : World Bank, IMF, 과테말라 중앙은행, 과테말라 통계청

○ 교역현황 (역내 및 역외)

- 2013년 기준, 전체 교역 규모 275억 달러로 중미 6개국 중 3위 규모
- (수출) 2013년 기준, 100억 달러 규모 수출, 주요 수출국은 미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 멕시코 순
- (수입) 2013년 기준, 175억 달러 규모 수입, 최근 3년간 지속적 증가세에 있으며, 주요 수입국은 미국, 멕시코, 중국, 엘살바도르, 파나마 순
- (주요 수출품목) 당류, 커피, 바나나, 여성의류, 귀금속 등
- (주요 수입품목) 석유 및 석유, 의약품, 휴대폰, 승용차, LPG 가스 등

○ 투자현황

- (FDI) 2013년 기준, 14억 달러유입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 증가세

<과테말라 교역현황>

(단위 : 백만 달러)

	2005	2010	2013
수출	5,381	8,463	10,030
수입	10,499	13,838	17,515

자료원 : UNCTAD

<2013년 과테말라 주요 수출입품목>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수출품목		수입품목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당류	942	석유	2,868
2	커피	716	의약품	470
3	바나나	652	휴대폰	473
4	여성의류	458	승용차	392
5	귀금속	448	LPG 가스	297

자료원 : International Trade Centre

○ **역내 교역현황**

- (수출) 2013년 기준, 역내 수출 총 30억 달러 (전체 수출액의 30.3%)
- (주요 수출품목) LPG가스, 빵류, 조제식료품, 플라스틱포장재, 화장지 등

<과테말라 對중미 6개국 수출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대상국가	2013년	
		규모	전체수출 대비 역내수출 비중
1	엘살바도르	1,109	11.1
2	온두라스	790	7.9
3	니카라과	487	4.9
4	코스타리카	396	4.0
5	파나마	237	2.4
중미 6개국		3,019	30.3

자료원 : GTI, UNCTAD

- (수입) 2013년 기준, 역내 수입 24억 달러(전체 수입액의 13.8%)
 - * 최근 3년간 중미 6개국 교역비중 증가세
- (주요 수입품목) 석유, 의약품, 전기, 당류, 살충제, 속옷류 등

<과테말라 對중미 6개국 수입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대상국가	2013년	
		규모	전체수입 대비 역내수입 비중
1	엘살바도르	820	4.7
2	파나마	585	3.3
3	코스타리카	520	2.9
4	온두라스	395	2.3
5	니카라과	110	0.6
중미 6개국		2,430	13.8

자료원 : GTI, UNCTAD

○ 관세제도

- 중미관세코드 협정 및 관세분류체계(SAC) 채택하여 역외 수입품에 대하여 중미공동시장의 공동관세 실시 중 SIECA 회원국 역내 무관세 적용
 - 역외 수입품에 대해 최저 5% 최대 20% 관세적용
 - 역내산 인정 기준으로 중미원산지규정도입
- 관세채량권인정에 따라 일부품목에 대한 공동관세 적용유보
 - 흰 옥수수, 설탕, 담배, 차량 및 무기 등은 최대 20%, 알코올 음료에 대해 최대 40% 관세 적용
- 수입 시 관세이외에 CIF가격 기준 부가가치세(IVA) 12% 과세

○ 주요동향

- 최대 교역국인 미국 경제회복과 FTA 확대 등에 힘입어 수출 증가 예상
- 투자기업에게 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 2015년 대선 앞두고 정부지출 증가와 저금리 기조 유지될 전망
- 중미전력공동화 시스템 참여 등 에너지공급구조 개선 위해 에너지 분야 투자 촉진 예상

□ 니카라과

○ 경제현황

- (인구) 2013년 기준, 615만 명으로 역내 4위 규모로 최근 3개년 간 인구성장률 1%대 유지
- (GDP) 2013년 기준, 108억 달러, 1인당 GDP 1,764달러로 역내 최하위이나 GDP 성장률은 4.6%로 역내 2위 수준
- (물가상승률) 2011년 이후 지속적 하락세 보이고 있으나 2013년 기준, 7.1%로 역내 1위 수준
- (주요산업) 식료품, 음료수, 신발, 의류, 커피, 목화, 바나나

<2013년 니카라과 경제현황>

인구(천명)	6,146
GDP(억 달러)	108
1인당GDP(달러)	1,764
GDP성장률(%)	4.6
물가상승률(%)	7.1

자료원 : World Bank, IMF, 니카라과 중앙은행, 니카라과 통계청

○ 교역현황 (역내 및 역외)

- 2013년 기준, 전체 교역 규모는 80억 달러로 회원국 중 최하위이며, 주요 교역국은 미국, 멕시코, 베네주엘라, 캐나다, 엘살바도르 순
- (수출) 2013년 기준, 24억 달러 규모 수출, 꾸준한 수출 증가세
- (수입) 2013년 기준, 56억 달러 규모 수입, 꾸준한 수입 증가세
- (주요 수출품목) 절연선, 금, 커피, 여성의류, 소고기
- (주요 수입품목) 석유, 역청유, 의약품, 화물차, 휴대폰

○ 투자현황

- (FDI) 2013년 기준, 8.5억 달러유입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 증가세

<니카라과 교역동향>

(단위 : 백만 달러)

	2005	2010	2013
수출	866	1,851	2,401
수입	2,623	4,173	5,650

자료원 : UNCTAD

<2013년 니카라과 주요 수출입품목>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수출품목		수입품목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절연선	573	석유	506
2	금	437	역청유	457
3	커피	353	의약품	299
4	여성의류	310	화물차	150
5	소고기	289	휴대폰	118

자료원 : International Trade Centre

○ 관세제도

- 중미관세코드 협정 및 관세분류체계(SAC) 채택하여 역외 수입품에 대하여 중미공동시장의 공동관세 실시 중이며 SIECA 회원국 역내 무관세 적용
 - 역외 수입품에 대해 최저 0% 최대 15% 관세적용
 - 섬유 및 의류제품은 독자관세 적용
- 사치성 수입품 일부에 대해 CIF 가격 기준 15%의 특별소비세 과세

○ 주요동향

- 국토면적 중미지역 내 최대 규모(130,373km²)이나 역내 최빈국으로 빈곤타파를 위한 적극적 대외개방과 해외투자 유치정책 추진 중
- 사회 인프라, 에너지, 관광업 등의 민간투자 적극 유치 중이며, 니카라과 대운하 건설, 정유 재처리단지 건설, 수력발전소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중

□ 엘살바도르

○ 경제현황

- (인구) 2013년 기준, 633만 명으로 역내 3위 규모이나 최근 3년간 인구성장률은 1%이하로 매우 낮음.
- (GDP) 2013년 기준, 243억 달러, 1인당 GDP 3,835달러로 역내 4위, GDP 성장률은 1.7% 역내 최하위
- (물가상승률) 2012년 급격한 하락 이후 최근 3개년 간 1%대 낮은 상승률 지속 중이며 2013년 회복세
- (주요산업) 식료품, 음료수, 석유 화학, 비료, 섬유, 가구, 경금속산업

<2013년 엘살바도르 경제현황>

인구(천명)	6,325
GDP(억달러)	243
1인당GDP(달러)	3,835
GDP성장률(%)	1.7
물가상승률(%)	0.9

자료원 : World Bank, IMF, 엘살바도르 중앙은행, 엘살바도르 통계청

○ 교역현황 (역내 및 역외)

- 2013년 기준, 전체 교역 규모는 162억 달러로 회원국 중 5위 규모
- (수출) 2013년 기준, 55억 달러 규모 수출, 주요 수출국은 미국, 온두라스,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순
- (수입) 2013년 기준, 108억 달러 규모 수입, 주요 수입국은 미국, 온두라스,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순
- (주요 수출품목) 의류, 당류, 플라스틱 포장재 등
- (주요 수입품목) 석유, 식물, 의약품, 휴대폰, LPG 가스 등

○ 투자현황

- (FDI) 2013년 기준, 1.4억 달러유입으로 회원국 중 가장 작은 규모

<엘살바도르 교역동향>

(단위 : 백만 달러)

	2005	2010	2013
수출	3,418	4,499	5,491
수입	6,690	8,416	10,772

자료원 : UNCTAD

<2013년 엘살바도르 주요 수출입품목>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수출품목		수입품목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티셔츠류	811	석유	1,790
2	편물의류	241	직물	350
3	양말류	228	의약품	266
4	당류	209	휴대폰	227
5	플라스틱 포장재	172	LPG 가스	172

자료원 : International Trade Centre

○ 역내 교역현황

- (수출) 2013년 기준, 역내 수출 총 7억 달러 (전체 수출액의 12.5%)
- (주요 수출품목) 플라스틱 포장재, 화장지, 빵류, 티셔츠류, 의약품, 속옷류 등

<2013년 엘살바도르 역내 수출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대상국가	2013년	
		규모	전체수출 대비 역내수출 비중
1	온두라스	239	4.3
2	과테말라	221	4.0
3	니카라과	103	1.9
4	코스타리카	83	1.5
5	파나마	44	0.8
중미 6개국		690	12.5

자료원 : GTI, UNCTAD

- (수입) 2013년 기준, 역내 수입 22억 달러 (전체 수입액의 20.3%)
- (주요 수입품목) 속옷류, 치즈, 티셔츠류, 팜유, 소고기, 전기, 당류, 비누, 마가린, 플라스틱 포장재 등

<2013년 엘살바도르 역내 수입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대상국가	2013년	
		규모	전체수입 대비 역내수입 비중
1	온두라스	793	7.3
2	과테말라	722	6.7
3	니카라과	324	3.0
4	코스타리카	229	2.2
5	파나마	122	1.1
중미 6개국		2,190	20.3

자료원 : GTI, UNCTAD

○ 관세제도

- 중미관세코드 협정 및 관세분류체계(SAC) 채택하여 역외 수입품에 대하여 중미공동시장의 공동관세 실시 중이며 SIECA 회원국 역내 무관세 적용
 - 역외 수입품에 대해 최대 15% 관세적용
 - 역내산 인정 기준으로 중미통합관세코드(CAUCA) 및 중미통합관세코드 규정(RECAUCA)에 따른 원산지규정 도입
- 수입부과금으로 부가가치세(IVA), 특별세 등 CIF가격 기준으로 과세

○ 주요동향

-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파타와 고용창출을 목표로 대외수출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중소기업 육성, 성장동력사업 육성, FTA 확대 등 국내산업 육성 및 적극적 시장개방 정책 추진 중
 - 2014년 중소기업육성 특별기금 설립, 카리브석유협력기구 가입, 생산성 향상·다변화·혁신을 위한 국가정책 발표
- 2014년 미국-엘살바도르 제2차 새천년원조기금 사업 이행협정 정식서명으로 태평양 연안지역에 향후 5년 간 총 3.68 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추진 중

□ 온두라스

○ 경제현황

- (인구) 2013년 기준, 810만 명으로 역내 2위 규모이며 인구성장률도 최근 3개년 간 지속적으로 2%대 유지
- (GDP) 2013년 기준, 185억 달러로 회원국 중 5위 규모이며, 1인당 GDP 2,384달러, GDP 성장률은 2.0%로 역내 5위 수준
- (물가상승률) 2012년 이후 지속적 상승세로 2013년 기준 5.2%로 역내 최고 수준
- (주요산업) 설탕, 커피, 의류, 담배 제조업 등 1차 소비재

<2013년 온두라스 경제현황>

인구(천명)	8,098
GDP(억달러)	185
1인당GDP(달러)	2,384
GDP성장률(%)	2.6
물가상승률(%)	5.2

자료원 : World Bank, IMF, 온두라스 중앙은행, 온두라스 통계청

○ 교역현황 (역내 및 역외)

- 2013년 기준, 전체 교역 규모는 189억 달러로 회원국 중 4위 수준이며, 주요 교역국은 미국, 독일,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순
- (수출) 2013년 기준, 78억 달러 규모 수출, 꾸준한 수출 증가세이나 수출품목이 매우 제한적으로 섬유 봉제 제품 및 농수산품이 수출품목의 대부분을 차지
- (수입) 2013년 기준, 110억 달러 규모 수입, 꾸준한 수입 증가세
- (주요 수출품목) 커피, 갑각류, 바나나, 팜유, 비누류
- (주요 수입품목) 석유, 의약품, 휴대폰, 화물차, 식료품

○ 투자현황

- (FDI) 2013년 기준, 10.6억 달러 규모 해외투자유입, 2005년 이후 지속적 증가세

<온두라스 교역동향>

(단위 : 백만 달러)

	2005	2010	2013
수출	5,048	6,264	7,833
수입	6,545	8,907	11,026

자료원 : UNCTAD

<2013년 온두라스 주요 수출입품목>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수출품목		수입품목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커피	836	석유	2,157
2	감각류	358	의약품	342
3	바나나	333	휴대 폰	173
4	팜유	264	화물차	158
5	비누류	100	식료품	145

자료원 : International Trade Centre

○ 관세제도

- 중미관세코드 협정 및 관세분류체계(SAC) 채택하여 역외 수입품에 대하여 중미공동시장의 공동관세 실시 중이며 SIECA 회원국 역내 무관세 적용
 - 역외 수입품에 대해 최저 0% 최대 15% 관세적용
 - 역내산 인정 기준으로 중미통합관세코드(CAUCA) 및 중미통합관세코드 규정(RECAUCA)에 따른 원산지규정 도입
- 수입부과금 15%, 알코올 음료 및 담배 등에 대해 15%의 특별소비세 부과

○ 주요동향

- 대외교역확대를 위해 수출지역다변화와 FTA 체결 적극적 추진 중
- 회원국 대비 GDP 대비 수출 비중이 높아 개방적인 통상정책을 취하고 있음
 - 비관세장벽 최소화와 수입규제조치 간소화

□ 코스타리카

○ 경제현황

- (인구) 2013년 기준, 471만 명으로 인구규모 역내 5위 수준, 최근 3년간 인 구성장률이 1%대로 높지 않음
- (GDP) 2013년 기준, 492억 달러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이며, GDP 성장률 3.5%, 1인당 GDP는 10,447달러로 역내 2위 수준
- (물가상승률) 2013년 5.3%로 2011년 이후 지속적 상승세
- (주요산업) 농림수산업, 제조업, 관광산업으로 1990년대부터 1차 산업 중심 수출구조에서 첨단기술 산업으로 전환을 적극 추진함
 - * 2012년 기준, 260여개 다국적 기업을 유치 (코스타리카 전체 수출의 약 50%를 차지)
 - * 2012년 기준, 진출 외국기업은 P&G, HP, IBM, Western Union, Amazon, INTEL 등

<2013년 코스타리카 경제현황>

인구(천명)	4,713
GDP(억달러)	492
1인당GDP(달러)	10,447
GDP성장률(%)	3.5
물가상승률(%)	5.3

자료원 : World Bank, IMF, 코스타리카 중앙은행, 코스타리카 통계청

○ 교역동향

- 2013년 기준 전체 교역 규모 296억 달러로 회원국 중 2위 규모
- (수출) 2013년 기준 116억 달러 규모 수출, 주요 수출국은 미국, 네덜란드, 파나마, 니카라과, 과테말라 순
- (수입) 2013년 기준 180억 달러 규모 수입, 주요 수입국은 미국, 중국, 멕시코, 일본, 과테말라 순
- (주요 수출품목) 반도체, 의료기기, 파인애플, 바나나, 식료품
- (주요 수입품목) 석유, 반도체, 승용차, 인쇄회로, 휴대폰

○ 투자현황

- (FDI) 2013년 기준, 26억 달러로 최근 3년간 지속적 증가세

<코스타리카 교역동향>

(단위 : 백만 달러)

	2005	2010	2013
수출	7,026	9,448	11,603
수입	9,824	13,570	18,014

자료원 : UNCTAD

<2013년 코스타리카 주요 수출입품목>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수출품목		수입품목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반도체	2,396	석유	2,155
2	의료기기	1,122	반도체	1,698
3	파인애플	837	승용차	557
4	바나나	780	인쇄회로	513
5	식료품	352	휴대폰	513

자료원 : International Trade Centre

○ 역내 교역현황

- (수출) 2013년 기준, 역내 수출 총 22억 달러 (전체 수출액의 18.6%)
- (주요 수출품목) 조제식료품, 소스류, 절연선, 수건류, 의약품, 빵류, 살충제, 철강제품, 플라스틱 포장용기, 우유 등

<2013년 코스타리카 역내 수출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대상국가	2013년	
		규모	전체수출 대비 역내수출 비중
1	파나마	580	5.0
2	니카라과	498	4.3
3	과테말라	450	3.9
4	온두라스	323	2.8
5	엘살바도르	311	2.7
중미 6개국		2,162	18.6

자료원 : GTI

- (수입) 2013년 기준, 역내 수입 12억 달러 (전체 수입액의 7%)
- (주요 수입품목) 종이 포장재, 플라스틱 포장용기, 빵류, 의약품 등

<2013년 코스타리카 역내 수입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대상국가	2013년	
		규모	전체수입 대비 역내수입 비중
1	과테말라	387	2.2
2	파나마	343	1.9
3	엘살바도르	249	1.4
4	니카라과	142	0.8
5	온두라스	128	0.7
중미 6개국		1,249	7.0

자료원 : GTI

○ 관세제도

- 중미관세코드 협정 및 관세분류체계(SAC) 채택하여 역외 수입품에 대하여 중미공동시장의 공동관세 실시 중이며 SIECA 회원국 역내 무관세 적용
 - 역외 수입품에 대해 최저 5% 최대 20% 관세적용
 - 농산물 제외하고 종가세(CIF 기준) 관세 산정
 - 역내산 인정 기준으로 중미원산지규정 도입
 - 2013년 기준, 93.4%의 제품에 대한 관세 단일화 시행
- 역외 대부분의 교역국에 최혜국관세 적용 중이며 평균 5.9%를 적용하나 농산품은 다른 품목에 비해 관세가 높은 편
 - 평균 최혜국 관세 : 농산품 13%, 농산품 외 품목 4.7%
 - 닭고기, 육류, 소시지, 감자, 설탕 등 수입관세는 35~66%로 고관세
- FTA 체결국에 적용되는 평균관세는 매우 낮은 편
 - 중미공동시장 0%, 카리브해공동체 1%, 미국 13%, 캐나다 13% 칠레 11% 중국 3.9% 등
- 수입 시 관세 이외에 판매세(IGV), 선택소비세(ISC) 등 부과하여 전체 통관 세금 높은 편
 - FTA 체결국 상품은 특별소비세 등 면제하고 판매세만 부과함

○ 주요동향

- 소규모 개방경제로 무역자유화와 외국투자유치를 통해 농산물 중심 수출 국가에서 첨단제조업 중심으로 수출구조 개혁
- 2007년 이후 적극적인 FTA 체결 추진 및 자유무역지대 설치,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제도 도입으로 기술, 서비스 집약적 경제구조로 발전 중

□ 파나마

○ 경제현황

- (인구) 2013년 기준, 385만 명으로 역내 최소 규모
- (GDP) 2013년 기준, 404억 달러로 회원국 중 3위 수준이나 1인당 GDP 는 10,790달러로 역내 1위 수준 GDP 성장률 역시 8.4%로 역내 1위 수준이나 최근 3년간 성장률 낮아지는 추세
- (물가상승률) 2011년 이후 지속적 하락세로 2013년 기준 4.0%
- (주요산업) 해운항만, 교통, 금융, 관광, 농업

<2013년 파나마 경제현황>

인구(천명)	3,851
GDP(억달러)	404
1인당GDP(달러)	10,790
GDP성장률(%)	8.4
물가상승률(%)	4.0

자료원 : World Bank, IMF, 파나마 중앙은행, 파나마 통계청

○ 교역현황 (역내 및 역외)

- 2013년 기준, 전체 교역규모는 370억 달러로 회원국 중 최대 규모로 최근 10개년 수출입 규모 모두 2배 이상 급증, 주요 교역국은 에콰도르, 러시아, 미국, 한국, 일본 순
- (수출) 2013년 기준, 151억 달러 규모 수출, 역내 수출규모 1위
- (수입) 2013년 기준, 219억 달러 규모 수입, 역내 수입규모 1위
- (주요 수출품목) 바나나, 갑각류, 생선류, 고철, 파인애플
- (주요 수입품목) 석유, 승용차, 의약품, 휴대폰, 철강제품

○ 투자현황

- (FDI) 2013년 기준, 46.5억 달러 규모 해외투자 유입, 역대 유입규모 1위

<파나마 교역동향>

(단위 : 백만 달러)

	2005	2010	2013
수출	7,050	10,987	15,050
수입	6,900	16,737	21,900

자료원 : UNCTAD

<2013년 파나마 주요 수출입품목>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수출품목		수입품목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바나나	96	석유	2,531
2	갑각류	75	승용차	794
3	생선류	47	의약품	336
4	고철	46	휴대폰	206
5	파인애플	44	철강제품	192

자료원 : International Trade Centre

○ 역대 교역현황

- (수출) 2013년 기준, 역대 수출 9천만 달러(전체 수출액의 0.6%)
- (주요 수출품목) 육류제품, 알루미늄 용기, 생선류, 치즈, 우유 등

<2013년 파나마 역대 수출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대상국가	규모	비중(%)
1	코스타리카	49	0.3
2	니카라과	13	0.1
3	온두라스	13	0.1
4	과테말라	9	0.1
5	엘살바도르	6	0.0
중미 6개국		90	0.6

자료원 : GTI

- (수입) 2013년 기준, 역대 수입 9억 달러 (전체 수입액의 4.3%)
- (주요 수입품목) 음료수, 플라스틱 포장용기, 조제식료품, 사료, 의약품, 빵류, 종이 포장재, 살충제, 절연선, 세제 등

<2013년 파나마 역내 수입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대상국가	규모	비중(%)
1	코스타리카	565	2.6
2	과테말라	208	0.9
3	엘살바도르	115	0.5
4	온두라스	39	0.2
5	니카라과	22	0.1
중미 6개국		949	4.3

자료원 : GTI

○ 관세제도

- WTO 회원국에 최혜국 관세율 적용, CIF 가격 기준 종가세 적용
 - 전체 수입관세 품목 8,711개, 최저 0%에서 최고 260% 관세 부과

○ 주요동향

- 최근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공공부문 투자확대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주지역 물류 및 비즈니스 허브 육성을 위한 국토개발계획을 수립, SOC 투자 프로젝트 강화해 나갈 전망
- 교역량 증가세이나 수출 증가율 대비 수입 증가율이 더 높아 무역수지 적자 지속, 미국과 FTA 발효 후 오히려 무역수지 악화
-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가 결성한 태평양 동맹 가입 추진, 콜롬비아(2013년), 멕시코(2014년) FTA 협상 체결

4. 한국 對 중미 6개국 교역 현황

○ 교역현황

- 2014년 기준, 33위 교역대상으로(수출 28위, 수입 45위) 총 교역액 50억 달러 규모로 지난 10년 간 교역량 2배 가까이 증가
- (수출) 2014년 기준, 38억 달러 규모 수출, 주요 수출품목은 선박, 승용차, 편직물 화물자동차, 합성수지 등
- (수입) 2014년 기준, 12억 달러로 주요 수입품목은 당류, 컴퓨터부품, 기타 금속광물, 고철, 커피 등
- (투자) 2014년 기준, 38.6억 달러로, 대파나마 투자규모가 전체의 82.7% 차지

<2014년 한국 對 중미 6개국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수출			수입		
순위	국가	금액	순위	국가	금액
1	파나마	2,764	1	파나마	495
2	과테말라	319	2	과테말라	320
3	코스타리카	242	3	코스타리카	290
4	니카라과	182	4	엘살바도르	57
5	엘살바도르	139	5	온두라스	51
6	온두라스	114	6	니카라과	21
총계		3,763	총계		1,237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014년 한국 對 중미 6개국 주요 교역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수출품목	금액	비중	수입품목	금액	비중
선박	2,300	65.7	당류	154	20.1
승용차	426	12.2	컴퓨터부품	130	16.9
편직물	246	7.0	기타금속광물	85	11.1
화물자동차	81	2.3	고철	84	11.0
합성수지	75	2.1	커피	66	8.7

주 : 선박 수출대상국은 파나마, 당류는 모두 과테말라에서, 컴퓨터부품은 모두 코스타리카에서 수입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對 과테말라 교역 및 투자현황

- 2014년 기준, 對 과테말라 총 교역액은 약 6억 4,000만 달러
- (수출) 2014년 기준, 3억 1,956만 달러 수출, 주요 수출품목은 승용차, 편직물, 합성수지, 면사, 화물자동차, 중장비 등
- (수입) 2014년 기준, 3억 2,069만 달러 수출, 주요 수입품목은 농산물과 금속광물 등 원부자재 등
- (투자) 2014년 기준, 주요 봉제, 부자재, 무역업체 등 100여개 한국계 기업이 진출, 약 7만 여명의 현지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과테말라 섬유수출의 70%를 점유하고 있음.

<2014년 한국 對 과테말라 주요 수출입품목>

(단위 : 천 달러)

순위	수출품목		수입품목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승용차	55,475	당류	153,880
2	편직물	53,331	기타금속광물	84,820
3	합성수지	27,185	커피류	18,326
4	면사	19,343	과실류	11,108
5	화물자동차	17,822	고철	10,863
총계	전체	319,568	전체	320,690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對 니카라과 교역현황 및 투자현황

- 2014년 기준, 對 니카라과 총 교역액은 약 2억 392만 달러
- (수출) 2014년 기준, 1억 8,223만 달러 수출, 주요 수출품목은 승용차, 편직물, 합성수지, 면사, 화물자동차, 중장비 등
- (수입) 2014년 기준, 2,170만 달러 수입, 주요 수입품목은 농산물과 금속광물, 의류 등 중심
- (투자) 2014년 기준, 자유무역공단에 25개 섬유·의류업체가 투자규모 1.5억 달러, 현지 고용인력 약 3만 여명으로 니카라과 섬유수출액의 60% 차지

<2014년 한국 對 니카라과 주요 수출입품목>

(단위 : 천 달러)

순위	수출품목		수입품목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편직물	92,694	고철	14,765
2	승용차	20,499	폐건전지	2,641
3	화물자동차	7,245	동괴및스크랩	1,045
4	기타섬유제품	6,920	알루미늄괴및스크랩	1,021
5	편직제의류	6,332	커피류	585
총계	전체	182,230	전체	21,699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對 엘살바도르 주요 교역현황

- 2014년 기준, 對 엘살바도르 총 교역액은 약 1억 9,728만 달러규모
- (수출) 2014년 기준, 총 수출액은 1억 3,944만 달러로, 주요 수출품목은 합성수지, 강판, 자동차, 플라스틱 제품, 자동차 부품 등
- (수입) 2014년 기준, 총 수입액은 5,789만 달러로, 주요 수입품목은 농산물과 금속광물, 의류 등 중심
- (투자) 2014년 기준, 약 34개사 5,890만 달러 규모로 진출, 이 중 20여 개 섬유·의류 업체가 약 1만 여명의 현지인을 고용, 연간 3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음.

<2014년 한국 對 엘살바도르 주요 수출입품목>

(단위 : 천 달러)

순위	수출품목		수입품목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합성수지	30,853	고철	8,121
2	아연도강판	21,030	폐건전지	4,825
3	도금강판	18,427	알루미늄괴및스크랩	2,338
4	승용차	12,748	커피류	1,645
5	화물자동차	12,479	편직제의류	1,336
총계	전체	139,444	전체	57,839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對 온두라스 주요 교역현황

- 2014년 기준, 對 온두라스 총 교역액은 약 1억 6,596만 달러규모
- (수출) 2014년 기준, 총 수출액은 1억 1,490만 달러로, 주요 수출품목은 전선, 자동차, 타이어, 세제, 합성수지, 염료 등
- (수입) 2014년 기준, 총 수입액은 5,105만 달러로, 주요 수입품목은 농산물과 금속광물, 고철 등 중심
- (투자) 2014년 기준, 약 20여개 기업이 임가공 분야(의류, 자동차, 전장품 등)에 진출하여 약 7,000 여명을 고용하고 있음.

<2014년 한국 對 온두라스 주요 수출입품목>

(단위 : 천 달러)

순위	수출품목		수입품목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전선	36,795	커피류	31,632
2	승용차	22,516	아연광	8,870
3	화물자동차	11,393	알루미늄괴및스크랩	3,187
4	타이어	5,195	동괴및스크랩	1,804
5	표면활성제	4,815	편직제의류	1,439
총계	전체	114,904	전체	51,055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對 코스타리카 주요 교역현황

- 2014년 기준, 對 코스타리카 총 교역액은 약 5억 3,333만 달러규모
- (수출) 2014년 기준, 총 수출액은 2억 4,254만 달러로,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인쇄회로, 합성수지, 자동차 부품 등
- (수입) 2014년 기준, 총 수입액은 2억 9,079만 달러로, 주요 수입품목은 컴퓨터 부품, 반도체, 고철, 의료용 기기, 커피 등
- (투자) 2014년 기준, 약 7,600만 달러규모 투자(누계, 신고기준), 대우버스 조립공장, POSCO건설 엔지니어링 센터, 세아상역 원사공장 등이 대표적임.

<2014년 한국 對 코스티리카 주요 수출입품목>

(단위 : 천 달러)

순위	수출품목		수입품목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승용차	120,232	컴퓨터부품	129,602
2	인쇄회로	17,635	개별소자반도체	54,219
3	화물자동차	16,072	고철	33,932
4	합성수지	11,236	집적회로반도체	20,421
5	자동차부품	9,289	의료용기기	14,927
총계	전체	242,541	전체	290,797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對 파나마 주요 교역현황

- 2014년 기준, 對 파나마 총 교역액은 약 32억 6,001만 달러규모
- (수출) 2014년 기준, 총 수출액은 27억 6,466만 달러로, 주요 수출품목은 선박, 자동차, 건설중장비, 철강, 타이어 등
 - * 선박 수출 규모 전체의 83.2%로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함
- (수입) 2014년 기준, 총 수입액은 4억 9,535만 달러로, 주요 수입품목은 LPG, 고철, 새우, 커피 등

<2014년 한국 對 파나마 주요 수출입품목>

(단위 : 천 달러)

순위	수출품목		수입품목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선박	2,300,387	LPG	48,245
2	승용차	194,218	고철	15,814
3	철강및비합금강형강	21,832	동괴및스크랩	7,439
4	건설중장비	17,768	알루미늄괴및스크랩	5,025
5	타이어	17,599	새우	1,423
총계	전체	2,764,664	전체	495,355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II | 우리기업의 진출기회

1. 수출유망상품 * 현지수요 증가품목, 고관세 품목 등을 중심으로 선정

① 승용차

품목명	승용차	HS Code	8703.22 / 8703.23
현 수입관세율	○ 파나마, 과테말라 : 0% ○ 기타국가 10~30%	경쟁국	미국, 일본, 멕시코, 독일, 벨기에, 인도
경쟁국에 대한 현 수입관세율	○ 파나마 - 수입관세 0% ○ 과테말라 - 미국, 일본, 멕시코 : 0% - 독일, 벨기에 : 15%		
유망사유	○ 중산층의 확대로 자동차 수요가 지속적 증가세에 있으며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파나마) 2014년 자동차 시장 규모 60,304대로 한국기업 시장 점유율은 34%에 달함. (일본기업 37%) - (과테말라) 2014년 한국 자동차 시장점유율 33%로 현대자동차의 소형차량은 택시용으로 선호도가 높음.		

□ 주요 바이어 의견

기업명	INVERSA	특기사항	파나마 중고 자동차 수입
매출규모	39만 달러	품목	승용차
담당자	Alejandro Barrera	직책	사장
FTA가 한국산 구입에 미치는 영향	○ FTA 체결 시 자동차 부품의 관세 인하 혜택 등으로 자동차 수입도 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최종 소비자는 자동차 구입 시 구매가격 뿐 아니라 향후 유지비도 계산하여 구입을 결정하므로 FTA를 통한 자동차부품 가격인하는 자동차 구입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		

□ 시장동향 및 우리기업 진출기회

- 중미 6개국의 자동차시장 규모는 연 17만대로 중산층 확대에 따라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중미 6개국은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아 전량을 수입하고 있음.
 - 우리 브랜드 자동차는 약 30%의 점유율(일본 브랜드 점유율 40%)을 보이고 있으나 품질을 인정받아 브랜드 인지도 높고, 꾸준한 수요 증가세
- 가격대가 높은 자동차는 구매가격이 소비자들의 선택에 중요한 요소임.
 - 과테말라와 파나마에서는 승용차에 대한 수입관세율 0%를 적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국가의 관세율은 10~30%로 높은 편임.
 - 엔저 효과로 일본 자동차 대비 가격경쟁력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높은 관세는 국내 브랜드 점유율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관세를 인하 시 우리 브랜드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임.
- 자동차 구매는 초기 구매 비용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비용도 중요함.
 - 자동차는 향후 유지관리비용 절감이 구매에 많은 영향을 미침.
 - 자동차 부품 수입관세가 철폐되면 유지관리비용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해 자동차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음.

② 자동차용 부품 (배터리 및 기타부품)

품목명	자동차용 배터리	HS Code	8507.10 / 8507.80
현 수입관세율	○ 파나마, 과테말라: 15%	경쟁국	미국, 멕시코, 타이완, 중국, 콜롬비아
경쟁국에 대한 현 수입관세율	○ 파나마 - 미국 : 0% - 멕시코, 콜롬비아 : 15% ○ 과테말라 - 미국, 멕시코, 타이완 : 0% - 콜롬비아 : 7.5% - 중국 : 15%		
유망사유	○ 자동차 수요 증가로 필수 소모품인 자동차 배터리 수요도 증가 ○ FTA 체결 후 관세 인하 되면 수입업자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		

품목명	자동차 부품(기타)	HS Code	8708.99
현 수입관세율	○ 과테말라 : 10%	경쟁국	미국, 일본, 중국, 타이완, 멕시코
경쟁국에 대한 현 수입관세율	○ 과테말라 - 미국, 타이완, 멕시코 : 0% - 중국, 일본 : 15%		
유망사유	○ 과테말라 - 자동차 관련 부품은 100% 수입에 의존		

□ 주요 바이어 의견

기업명	Casa de las Baterias	특이사항	시장 점유율 70~80%
매출규모	1,000 만 달러 이상	품목	차량용 배터리
담당자	Mr. Juan Octavio Diaz	직책	General Manager
FTA가 한국산 구입에 미치는 영향	○ 한국산 배터리 인지도와 가격경쟁력이 높아 현지수요가 높음. ○ 관세 인하 시 경쟁국인 미국산 배터리보다 경쟁력이 상승할 것임.		
한국산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	○ 가격경쟁력을 강화해야함. ○ 미국, 멕시코 대비 긴 납기기한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어야 함.		

기업명	La casa de las baterias	특기사항	자동차용 배터리 수입
매출규모	500만 달러 이상	품목	자동차용 배터리
담당자	Oscar Casteñeda	직책	수입부서 팀장
FTA가 한국산 구입에 미치는 영향	○ 관세 인하 시 관세율 혜택으로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한국산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	○ 미국, 멕시코 대비 긴 납기기한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어야 함.		

기업명	KAR	특기사항	자동차부품 수입/ 판매
매출규모	400 만 달러	품목	자동차 부품
담당자	Elmer Arias	직책	사장
FTA가 한국산 구입에 미치는 영향	○ 관세 인하를 통한 가격경쟁력 강화가 예상됨. ○ 관세가 인하되면 품질에서 앞서는 한국산 부품을 수입하고 싶다는 바이어가 많음.		
한국산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	○ 한국 제품은 고성능과 긴 수명으로 인지도가 높음. ○ 제품 신뢰도 유지와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증기간 연장 등의 전략이 필요함.		

□ 시장 분석 및 우리기업 진출 전망

- 중미 6개국의 자동차 수요 확대에 따라 필수 소모품인 자동차 부품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는 중미 6개국은 자동차 관련 부품 역시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관세는 수입업자들에게도 중요한 관심 사안임.
 - 우리 브랜드 부품은 우수한 성능과 긴 수명으로 현지에서 인지도가 높으나 수입관세율이 높아 바이어들은 저가의 중국제품을 수입함.
- 관세 인하 시 가격경쟁력을 회복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것으로 기대
 - 초저가의 중국산 부품 대비 가격경쟁력 회복할 수 있을 것임.
 - 수입관세율 0%를 적용받는 미국산 부품에 대해서는 우리 브랜드 제품의 품질 인지도가 높아 관세 인하 시 더 높은 경쟁력은 갖출 것으로 전망
 - 품질에서 앞서는 우리 브랜드 부품을 수입하고 싶어 하는 바이어가 많아 이들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함.
- 진출국 및 인접지역에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미국, 멕시코 제품 대비 긴 납기기한 단축을 통해 가격경쟁력 회복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임.

③ 타이어 및 중고/재생 타이어

품목명	타이어	HS Code	4011.10
현 수입관세율	10%	경쟁국	중국, 일본
FTA 체결국	미체결	경쟁국에 대한 현 수입관세율	10%
유망사유	○ 파나마 - 중산층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타이어 수요가 증가세에 있음.		

품목명	중고/재생 타이어	HS Code	4012.20
현 수입관세율	○ 과테말라 : 15%	경쟁국	미국, 일본, 영국, 네덜란드, 독일,
경쟁국에 대한 현 수입관세율	○ 과테말라 - 미국 : 0% - 독일, 네덜란드 : 6% - 영국, 일본 : 15%		
유망사유	○ 한국산 제품의 관세율이 높아 미국을 통해 우회 수입하는 경우가 많음. ○ FTA 체결 이후 한국 업체와의 직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주요 바이어 의견

기업명	한국타이어 (파나마 지사)	특이사항	시장 점유율 1위
매출규모	비공개	품목	타이어
담당자	김재환	직책	대리
FTA가 한국산 구입에 미치는 영향	○ 관세인하로 인한 가격경쟁력 상승이 예상되나, 중국산 타이어 가격이 워낙 낮아 중국산 대비 가격경쟁력은 크지 않을 것임.		
한국산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	○ 품질개선에 많은 투자가 필요함. ○ 고급 타이어(프리미엄급)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 품질 인지도를 높여 고급 타이어 시장에 진출한다면 일반 타이어 시장의 낮은 가격경쟁력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임.		

기업명	Llantegua	특기사항	과테말라 중고/재생 타이어 수입
매출규모	4백만 달러	품목	중고/재생타이어
담당자	Jessica Juarez	직책	수입부서 팀장
FTA가 한국산 구입에 미치는 영향	○ 관세 인하를 통한 가격경쟁력 강화		
한국산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	○ 미국으로부터 한국 브랜드의 재생 및 중고 타이어를 수입하는 회사들은 한국과 직접 거래를 원하고 있어 이들을 발굴하여 접촉하는 것이 필요함.		

□ 시장동향 및 우리기업 진출기회

- 신규생산 타이어의 경우 최대 경쟁국인 중국이 초저가로 시장에 진출해 있어 관세가 인하되더라도 일반 타이어 시장에서의 중국산 대비 가격경쟁력 상승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
 - 최근 중산층의 성장으로 고급 타이어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 중국 제품 대비 품질 경쟁력에서 앞서는 프리미엄 타이어를 주력으로 인지도를 높여 가는 전략이 필요함.
- 중남미 국가는 컨테이너 트럭 이동량이 많아 관련 부품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 컨테이너 트럭 운전자들은 낡은 타이어 교체로 새 타이어보다 주로 중고/재생 타이어를 선호하여 수요가 다른 지역 대비 높은 편임.
- 중고/재생 타이어의 상당량은 관세가 없는 미국을 통해 공급되고 있음.
 - 우리 브랜드 제품은 신뢰도가 높아 현지 수요 높은 편이나 한국에서 직접 수출 시 수입관세율 15%로 대부분 미국을 통해 우회 수입되고 있음.
 - 미국으로부터 우리 브랜드 제품을 수입하는 회사들은 우리기업과 직접 거래를 원하고 있음.
- FTA 체결을 통해 관세가 인하되면 우리 브랜드 제품 수출 확대가 전망됨.
 - 현지 유틸리티 바이어 발굴 및 현재 미국을 통해 우리 브랜드 제품을 수입하는 바이어를 적극 발굴하여 안정적 유통망을 확보해야 함.
 - 기존에 우리 브랜드 제품을 취급하던 바이어를 발굴하면 마케팅 및 판촉비용도 절감할 수 있음.

④ 휴대폰

품목명	휴대폰	HS Code	8517.12
현 수입관세율	○ 코스타리카 : 13% ○ 니카라과 : 20%	경쟁국	미국, 중국
유망사유	○ 스마트폰의 다양화에 따른 수요 및 중고폰 구매수요 꾸준히 지속		

□ 주요 바이어 의견

기업명	삼성전자(SELA 중남미법인)	특이사항	점유율 60%이상
매출규모	비공개	품목	휴대폰/태블릿
담당자	이경록	직책	대리
FTA가 한국산 구입에 미치는 영향	○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한국산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	○ 국가-기업 연계 국가 및 기업 이미지 강화 필요		

□ 시장동향 및 우리기업 진출기회

- 중산층의 성장으로 스마트폰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중산층은 브랜드 인지도와 사양이 높은 프리미엄 제품을 선호하는 추세임.
 - 스마트폰의 경우 브랜드 이미지가 구매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 우리 브랜드 제품은 중미 6개국에서 고급제품으로 인식되고 있음.
 - 특히 최근 한류 열풍을 계기로 우리 브랜드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
- 관세 인하 시 수입관세율 높은 코스타리카(13%), 니카라과(20%) 등지에서 가격경쟁력이 대폭 상승해 수요 확대 전망
- FTA 체결은 현지에 우리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로 현재 수입관세율이 없는 파나마 등 국가에서는 국가 이미지 상승과 연계한 브랜드 이미지 강화 마케팅 필요

⑤ 의약품(백신류)

품목명	의약품(백신류)	HS Code	3002.20
현 수입관세율	○ 파나마 : 0%	경쟁국	벨기에, 프랑스, 인도, 파나마, 스위스
FTA 체결국	○ 과테말라 - 벨기에, 프랑스, 파나마	경쟁국에 대한 현 수입관세율	0%
유망사유	○ 과테말라는 의약품을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공공보건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수요 증가 예상됨.		

□ 주요바이어 의견

기업명	Osteomedic	특기사항	의료용품 수입 및 유통
매출규모	250 만 달러	품목	백신
담당자	Mario Ramazzini	직책	사장
FTA가 한국산 구입에 미치는 영향	○ 한국산 제품에 대한 효과와 품질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되었음. ○ 관세 인하 시 다른 의약품 수요증가로 백신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임.		

□ 시장동향 및 우리기업 진출기회

- 중미 6개국은 주로 민간시장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은 의료혜택을 거의 받지 못함.
 - 의약품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가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저소득층이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민간시장에서 의약품을 공급받기 어려움.
 - 정부 차원의 의약품 및 백신 보급 필요성이 높아져 수요 증가가 예상됨.
 - 과테말라의 경우 하층민 복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FDA 승인을 받은 의약품을 대리 판매 및 공급하고 있음.
- 우리 의약품의 효능과 품질은 중미 6개국에서 인정받고 있음.
 - 우리나라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에서 의료·보건 분야 개발 협력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어 우리 의약품은 충분히 검증되었음.

- 대부분의 의약품 수입관세율은 0%이나 항생제와 알칼로이드 등 일부 의약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관세 인하로 일부 품목 가격이 낮아지면 정부의 공개입찰 시 가격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관세 인하된 일부 품목의 공급이 확대되면 우리 의약품 전반의 인지도가 높아져 현재 수입관세가 없는 다른 의약품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⑥ 초음파 영상진단장비

품목명	초음파 영상진단 장비	HS Code	9018.12
현 수입관세율	○ 파나마 : 10%	경쟁국	미국, 네덜란드, 중국
경쟁국에 대한 현 수입관세율	○ 파나마 - 미국, 네덜란드 : 0% - 중국: 10%		
유망사유	○ 공공 보건인프라 투자와 공공 보건시설 내의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 등으로 의료장비의 수요 증가 전망		

□ 주요 바이어 의견

기업명	Biomedical Support & Systems	특이사항	시장점유율 35~40%
매출규모	2~300 만 달러	품목	초음파 영상진단 장비
담당자	Mr. Alonso Diaz	직책	General Manager
FTA가 한국산 구입에 미치는 영향	○ 한국산 제품은 공공보건분야 시장점유율 높으나 민간시장 점유율 낮음. ○ FTA 체결 시 관세 인하로 민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향상될 것임.		
한국산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	○ 부품 공급 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 물류/유통 부문에서 경쟁력을 보완해야 함.		

□ 시장동향 및 우리기업 진출기회

- 최근 중미 6개국은 공공보건 인프라 투자 확대와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의료장비 수요가 증가세에 있음.
- 우리 제품은 품질을 인정받고 있으나 높은 수입관세율로 가격경쟁력이 낮음.
 - 부품공급 시 시간과 비용 소요가 크다는 점도 민간시장 점유율이 낮은 이유임.

- 관세가 인하되면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민간시장 진출확대와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 수주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
- FTA 체결을 통해 투자여건 개선 시 현지 및 인접지역에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부품공급 시간 및 비용 소요과다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임.

⑦ 철강제품 (철강구조물 및 아연도금강판)

품목명	철강구조물	HS Code	7308.90
현 수입관세율	○ 파나마 : 3~15%	경쟁국	중국, 이탈리아, 미국, 스페인
경쟁국에 대한 현 수입관세율	○ 파나마 - 미국: 0% - 중국 : 10% - 이탈리아 : 3~15%		
유망사유	○ 현지 건설시장 꾸준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으며, 민간 부문, 10억 달러, 공공 부문 30억 달러 규모 시장 잠재력이 있음 ○ 각종 민간 및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교량, 메트로 등)로 철강 구조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품목명	아연 도금 강판(롤)	HS Code	7210.61
현 수입관세율	○ 과테말라 : 15%	경쟁국	멕시코, 코스타리카, 중국, 엘살바도르,
경쟁국에 대한 현 수입관세율	○ 과테말라 - 멕시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 0% - 중국 : 15%		
유망사유	○ 지속적으로 주거지 및 쇼핑몰 등 건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주요 건축 자재인 철강제품의 수요 또한 증가세 유지할 전망		

□ 주요 바이어 의견

기업명	Aceros de Guatemala	특기사항	철 및 철강 제품 제조
매출규모	8 백만 달러	품목	철강 제품
담당자	Manuel Avila	직책	수입부서 팀장
FTA가 한국산 구입에 미치는 영향	○ FTA 체결 시 관세율이 인하되면 한국제품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임.		
한국산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	○ 중국 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갖추어야 함.		

기업명	Representacion Bemo	특기사항	철강 제품유통 및 판매
매출규모	3 백만 달러	품목	철강 제품
담당자	Esteban Valderramos	직책	부사장
FTA가 한국산 구입에 미치는 영향	○ 관세율 혜택 뿐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제품을 수입할 수 있는 수입업자들의 폭넓은 기회가 될 것임.		

□ 시장동향 및 우리기업 진출기회

- 최근 중미 6개국은 주택수요 증가와 대대적인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의 진행으로 건설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 주택과 고층건물 건설 수요 확대로 주요 건축자재 수요 증가세
 - 특히 철강제품 수요가 높은 철도, 교량, 항만 등 주요 공공 인프라 건설 수요가 커지고 있음.
 - 파나마의 경우, 민간부문 10억 달러, 공공부문 30억 달러규모의 시장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추산됨.
- 현재 철강제품은 중국의 과잉공급으로 가격이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세계적으로 품질을 인정받는 우리 철강제품은 현지 수요가 높으나 높은 수입관세와 저가의 중국제품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낮음.
 - FTA 체결을 통해 관세를 인하하면 가격경쟁력 회복과 높은 품질 경쟁력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건설업자들은 교량, 항만, 공항 건설 프로젝트 등 높은 기술이 요구되는 시장에서 가격경쟁력보다 품질경쟁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경쟁국이 제공할 수 없는 고품질의 다양한 제품군 중심의 품질 마케팅 필요

⑧ 건설 중장비

품목명	건설 중장비	HS Code	8429.52
현 수입관세율	0%	경쟁국	파나마, 일본, 중국, 미국, 체코
FTA 체결국	○ 과테말라 - 파나마, 미국, 체코	경쟁국에 대한 현 수입관세율	0%
유망사유	○ 과테말라는 주거지 건설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주요 바이어 의견

기업명	Tecnidiesel	특기사항	판매 및 렌트업자
매출규모	460만 달러	품목	중장비
담당자	Eddie Villanueva	직책	수입부서 팀장
FTA가 한국산 구입에 미치는 영향	○ 관세율이 낮아지면 한국으로부터의 중장비 수입도 증가가 예상됨. ○ 현재 미국을 통해 한국산 제품 수입하고 있으나 FTA 체결 이후 한국과 의 직접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시장동향 및 우리기업 진출기회

- 중미 6개국의 건설 수요 증가로 건설 중장비 수요도 지속적 증가세 전망
 - 현재 건설 중장비는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으나 관련 부품 관세 인하 시 유지 관리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중장비 판매량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부품 가격경쟁력 변화가 판매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후 부품공급 및 보증 서비스 중심의 마케팅이 필요함.
- 우리 기업이 진출 유망분야인 사회 인프라 사업 참여를 확대하게 되면 우리 건설 중장비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미국, 멕시코 등 주요 경쟁국 대비 긴 납기기간은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FTA 체결을 통해 투자여건이 개선되면 현지 및 인접지역에 물류·유통 체계를 구축하여 납기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야 함.

⑨ 엘리베이터

품목명	엘리베이터	HS Code	8428.20
현 수입관세율	○ 파나마 : 3%	경쟁국	중국
경쟁국에 대한 현 수입관세율	3%		
유망사유	○ 고층빌딩의 건설이 많아 엘리베이터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주요 바이어 의견

기업명	ThyssenKrupp Elevadores, S.A	특이사항	시장점유율 25%
매출규모	비공개	품목	엘리베이터
담당자	Mr. Franklin de Leon	직책	Commercial Manager
FTA가 한국산 구입에 미치는 영향	○ FTA 체결로 무관세로 수입하게 되면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한국산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	○ 중국산 엘리베이터는 가격과 품질 모두에서 경쟁력이 있음. ○ 중국산 제품에 비해 경쟁력을 높이려면, 초고속 “하이라이스” 제품의 기술력을 향상시켜 한국산 제품을 차별시켜야 함		

□ 시장동향 및 우리기업 진출기회

- 중미 6개국은 엘리베이터 시장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임.
 - 최근 중미 6개국 주요도시에서 쇼핑몰 등 고층빌딩 건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엘리베이터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현재까지 중미 엘리베이터 시장의 주요 공급처는 중국임.
 - 엘리베이터 수입관세율은 3%로(파나마 기준) 비교적 높지 않아 저가에 품질경쟁력도 인정받는 중국산 제품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임.
- 관세 인하를 통해 중국산 대비 가격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산 제품의 품질 경쟁력이 높아 신기술 적용을 통한 차별화 전략과 제품 인지도 제고를 위한 판촉과 마케팅 투자 필요

⑩ 염색된 편직물

품목명	염색된 편직물	HS Code	6006.22
현 수입관세율	○ 과테말라 : 10%	경쟁국	중국, 엘살바도르, 베트남, 홍콩, 미국
경쟁국에 대한 현 수입관세율	○ 과테말라 - 엘살바도르, 미국 : 0% - 중국, 베트남, 홍콩 : 10%		
유망사유	○ 과테말라는 편직물 생산 및 프린트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 많은 양을 수입에 의존함. ○ 현재 수입관세율 10%로 관세 인하 시 가격경쟁력 상승할 전망.		

□ 주요 바이어 의견

기업명	Tejidos Perfecta	특기사항	원단 생산업자
매출규모	비공개	품목	의류용 원단
담당자	Carlos Zimeri Gandara	직책	사장
FTA가 한국산 구입에 미치는 영향	○ FTA 체결 시 관세 인하 혜택이 기대됨. ○ 한국산 편직물의 품질과 디자인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 높음. ○ 단조롭고 심플한 편직물만을 생산하는 기술을 가진 현지에서는 FTA 체결 이후에 더 많은 한국산 편직물 수요가 예상됨.		
한국산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	○ 과테말라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특수 편직물과 디자인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함.		

□ 시장동향 및 우리기업 진출기회

- 중미 6개국은 섬유·의류 산업이 수출주력산업으로 편직물 수요가 높음.
 - 현지 생산 기술이 높지 않아 편직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현지 시장은 우리 의류·봉제 업체가 80년대부터 진출해 있어 우리기업의 편직물의 품질과 디자인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가 높음.
 - 최근 중미 시장에 부는 한류 열풍으로 한국 패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며 우리 편직물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OEM 방식으로 해외 의류 브랜드를 생산하는 중미 6개국의 특성상 편직물 가격은 섬유·의류업체에 민감한 부분임.
 - 관세가 인하되면 우리 편직물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OEM 생산 방식을 감안해 해외 의류 브랜드 회사에 대한 직접 마케팅 필요

⑪ 폴리에틸렌

품목명	폴리에틸렌	HS Code	3901.10
현 수입관세율	○ 과테말라 : 0%	경쟁국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브라질, 카타르
경쟁국에 대한 현 수입관세율	0%		
유망사유	○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플라스틱 제품은 1,456.47%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장기간 동안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추세임.		

□ 주요 바이어 의견

기업명	Guateplast	특기사항	비닐봉지 제조업자
매출규모	700 만 달러	품목	폴리에틸렌
담당자	Daniel Muñoz	직책	수입부서 팀장
FTA가 한국산 구입에 미치는 영향	○ FTA 체결 시 한국기업이 다양한 제품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함.		
한국산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	○ 과테말라 현지에서는 한국제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임. ○ 따라서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한국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불량 제품에 대한 처리 및 후속 조치를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기업 간의 유대관계를 쌓는 것도 중요함.		

□ 시장동향 및 우리기업 진출기회

- 중미 6개국은 음식 보관용 플라스틱 용기 등 생활용 플라스틱 제품 성장세가 높아 플라스틱 원료인 폴리에틸렌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과테말라 경우 플라스틱 제품 시장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간 약 1,456%의 고성장을 기록함.
- FTA가 체결 시 국가 인지도가 상승한다는 점을 활용하여 한국산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브랜드 및 제품 이미지를 높인다면 지속적인 시장 점유율 확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⑫ 음료수 및 인스턴트 면류

품목명	음료수	HS Code	2202.90
현 수입관세율	○ 과테말라 - 음료수 : 15% 인삼음료 : 10%	경쟁국	엘살바도르, 멕시코, 미국, 독일, 코스타리카
경쟁국에 대한 현 수입관세율	○ 과테말라 - 엘살바도르, 멕시코, 미국, 코스타리카 : 0% - 독일 : 10%		
유망사유	○ FTA 체결 시 관세 인하로 가격경쟁력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품목명	인스턴트 면류	HS Cod	1902.30
현 수입관세율	15%	경쟁국	멕시코, 미국, 칠레, 이탈리아, 코스타리카
경쟁국에 대한 현 수입관세율	○ 과테말라 - 미국, 멕시코, 코스타리카 : 0% - 이탈리아 : 12% - 칠레 : 11.2%		
유망사유	○ 다양한 종류의 라면을 보유한 한국은 FTA 체결 시 관세철폐를 통해 다양한 제품으로 현지에 진출할 수 있을 것임.		

□ 주요 바이어 의견

기업명	Ninoshka	특기사항	음료수 수입 및 유통
매출규모	비공개	품목	음료수
담당자	Andrea Giron	직책	판매부 팀장
FTA가 한국산 구입에 미치는 영향	○ 관세율 혜택이 가장 긍정적인 영향일 것임.		
한국산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	○ 과테말라의 음료 시장은 천연음료, 건강음료, 오가닉 제품, 녹차, 저혈당 음료로 시선을 돌리고 있음. ○ 한국 인삼 드링크와 알로에 음료와 같은 건강음료에 대한 광고와 판촉활동(시음회 등) 확장 필요		

기업명	DR Corporacion	특기사항	음료수 수입 및 유통
매출규모	비공개	품목	음료수
담당자	Edwin Chavez	직책	판매부 팀장
FTA가 한국산 구입에 미치는 영향	○ 과테말라에는 한국 식품점이 밀집되어 있으며, 광고 및 시음을 통해 비교적 알려져 있음. ○ 최근 과테말라 사람들은 건강식품 선호도가 높아져 FTA가 체결 시 다양한 한국의 건강 음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임.		

기업명	Corporacion Crysty, S.A.	특기사항	인스턴트 라면 생산
매출규모	비공개	품목	인스턴트 라면류
담당자	Heidi Castro	직책	수·출입부서 팀장
FTA가 한국산 구입에 미치는 영향	○ FTA 체결 시 관세 혜택이 예상됨. ○ FTA 체결 시 과테말라 보건 복지부의 제품 수입 허가절차가 간소화 될 수 있음. ○ 중미시장에 새로운 한국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한국산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	○ 한국식품은 과테말라에서 건강식으로 인식되고 있음 ○ 시식을 통해 한국의 맛을 알리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임.		

□ 시장동향 및 우리기업 진출기회

- 중미 6개국은 식사 시 물보다 음료수를 많이 마시는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인스턴트 식품 소비율이 높은 편임.
- 한국식품은 현지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고 있어 인지도가 있음.
 - 한국식품은 건강식품이라는 인식이 높으며, 최근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 한국 식료품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관세 인하를 통해 시중판매가격이 낮아진다면 드라마 등을 통해 잘 알려진 한국제품 판매량 확대가 예상됨.
- FTA를 통해 수입절차를 간소화하면 우리 식음료 제품의 현지 진출이 더욱 증가하는 계기가 될 것임.

2. 진출유망분야

① 사회 인프라

☐ 파나마

- 중남미 물류거점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목표로 국토개발정책 수립
- 운하 확장, 지하철 확충, 교량·전력·공항 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주 중
 - 우리기업 수주사례 : 70MW급 디젤 발전소(현대중공업), 석탄화력 발전소(SK E&C)

☐ 과테말라

- 에너지 사업(멕시코-과테말라 가스관 및 천연발전소 건설), 화물철도 건설 및 항만시설 개선 등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 발주 검토 중

☐ 온두라스

- 전력·도로·항만·공항 등 사회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 수요가 높은 편이나, 자원부족으로 국제사회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IDB 등 국제개발은행 통한 입찰참여 또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활용 필요

☐ 엘살바도르

- 발전소(풍력·수력) 건설, 발전 및 송배전, 국제공항 확장공사 등 대규모 사회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중

② ICT

□ 지능형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 및 전자정부(E-Government) 구축

- 우리기업의 ICT 분야 경쟁력을 활용하여 중미 6개국의 ICT 프로젝트에 참여 가능
- 전자정부는 우리나라와의 협력경험이 많아 유망분야로 꼽힘.

<주요국 추진현황>

분야	내용
지능형 교통카드	○ 과테말라 : 수도 과테말라시 운행 버스 대상 선불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 (3,500만 달러 규모)
전자정부	○ 코스타리카 : 전자통관시스템 현대화, 전자우정사업, 대법원 전자행정시스템 도입 ○ 과테말라 :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 추진

③ 개발협력

□ 개발원조, 경제발전 경험공유 등을 통한 시장진출 기반 구축

- 중미지역의 빈부격차, 낮은 의료수준, 치안불안 등 지역적 특성 감안할 때 경제개발·소득 증대·보건환경 개선·치안역량 강화 분야 지원 필요

<주요지원분야>

국가	주요 지원분야
과테말라	○ 식수공급, 모자보건, 경찰교육 시스템, 도시개발, 공공투자관리, 교통정책
온두라스	○ 외투기업 전용 특별개발지구 설립, 방범시스템 구축, 병원설립, 송배전망 확충
엘살바도르	○ 병원설립, 범죄예방, 관개시설 확충, 국가 R&D 정책 및 전략산업 R&D 정책
니카라과	○ 고속인터넷망(브로드밴드) 구축, 도로망 개선, IT교육훈련센터 설립
코스타리카	○ 개발경험(기술혁신, 산업클러스터) 공유, WFK(해외봉사단) 퇴직 전문인력 파견

III 시사점

□ 우리 주력 수출품목은 중미 6개국의 주요 수입품목으로 상호보완적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어 FTA 체결 시 우리 제품 수출 확대 예상

- 중산층의 성장과 경제개발 프로젝트의 진행으로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휴대폰, 의약품, 전자기기, 건설자재 등에 대한 지속적 수요 증가세
 - 우리 섬유·봉제 산업이 80년대부터 진출해 있어 인지도가 높은 우리 편직 물도 꾸준한 수요가 예상됨.
 - 한류 열풍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식음료 제품까지 우리제품의 인기몰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더라도 품질경쟁력 강화와 인지도 제고 노력이 필요함.
 - 주요 경쟁국인 미국, 멕시코 등도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우리 제품 관세가 인하 되더라도 품질경쟁력이 시장 점유율 확대의 관건이 될 것임.
 - 품질 인지도 제고 위해 제품시연, 샘플제공, 전시회 참가 등 적극적 마케팅 필요
 - 특히 중미 6개국은 미국 제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어 미국 바이어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유력 미국 바이어 발굴도 요구됨.

□ 우리 중소기업이 미국, EU 등 주요국가에 진출할 수 있는 길목시장 역할기대

- 중미 6개국은 미국, EU 등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 세계 주요시장을 연결하는 교두보로 자리 잡음.
 - 우리 진출기업들이 중미 6개국이 체결한 FTA를 활용하여 세계 주요시장인 북미와 유럽시장에 진출하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중소기업 적합형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전략 필요

- 현지 제조업은 OEM 방식으로 해외 브랜드 제품 생산에 치중하고 있어서 내수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제품 비율이 낮음.
 - 중산층의 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다양한 상품 수요를 우리 기업의 수출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임.
 - 인당 소득 수준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 구매력이 크지 않아 대기업의 고가제품보다는 중소기업의 중저가형 제품이 더 경쟁력 있을 것으로 분석됨.
 - 최근 한류 확산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브랜드 인지도를 빠르게 높여갈 수 있음.
- 세계 최대 시장인 북미 시장과 가깝고, 적극적인 대외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중소기업의 테스트 마켓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적합한 제품개발과 차별화된 서비스 공급으로 성과창출을 모색해야함.

2015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GMR (Global Market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5-001	경쟁국 對유럽 M&A 현황 및 시사점 - 1편 -	2015.1
15-002	경쟁국 對유럽 M&A 현황 및 시사점 - 2편 -	2015.1
15-003	최근 우리나라 FTA 확대와 해외진출 전략	2015.1
15-004	주요국 온라인 해외 직구시장 동향	2015.1
15-005	2015년 1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2015.1
15-006	RCEP 협상 동향과 참여국별 전략 및 산업계 반응	2015.1
15-007	아베노믹스 2년 성과 진단 및 향후 전망	2015.1
15-008	그리스 총선 결과에 따른 정책 방향 및 시사점	2015.1
15-009	TPP 협상이 섬유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2015.2
15-010	주요국 정상신년사로 바라본 2015년 글로벌 경제통상환경	2015.1
15-012	엔저 장기화에 따른 일본기업 동향 및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2015.3
15-013	'재부상 하는 인도' - 2015~2016 회계연도 인도 예산안 주요내용 및 우리기업 진출 기회 분석	2015.3
15-014	한-뉴질랜드 FTA에 따른 현지반응과 중소기업 수출유망품목	2015.3
15-015	2014년 대한 수입규제 동향과 2015년 전망	2015.3
15-016	2015년 2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2015.3
15-017	미국 금리인상 전망과 수출 기상도	2015.4
15-018	일본 식품시장 트렌드 및 진출 가이드	2015.4
15-019	아세안 역내 경제통합에 따른 주요국 동향 및 시사점	2015.4
15-020	유가하락에 따른 산유국 시장동향 분석 및 시사점	2015.4
15-021	TPP 협상이 전자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2015.5
15-022	유럽 실버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1)	2015.5
15-023	유럽 실버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2)	2015.5
15-024	EU 에너지연합 기본전략계획안 내용 및 시사점	2015.5
15-025	2015 영국 총선 결과에 따른 정책방향 및 시사점	2015.5
15-026	TPP 이후 한일 대미 수출 전망	2015.6
15-027	세계시장의 히트 환경상품	2015.6

□ KOCHI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5-001	중소기업 중국 내수시장 진출 종합 안내서	2015.1
15-002	부진속에 빛난 대중국 수출품 : 14년 가공단계별·품목별 수출성과	2015.2
15-003	주요국의 중국 농식품시장 진출 사례	2015.5

□ KOTRA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5-001	2015년 이후 유럽 각 국의 주요 제도 변화	2015.1
15-002	KOTRA Global Insight (2015년 권역별 진출전략)	2015.1
15-004	2014 KOTRA 글로벌 CSR 성과보고서	2015.1
15-005	2015 권역별 시장진출전략	2015.1
15-006	크로아티아 투자실무가이드	2015.1
15-007	GVC발전단계 모델 관점에서 본 한국의 지역별 외국인투자 입지 현황과 정책방향	2015.2
15-008	주요 글로벌 완성차/벤더 맵핑조사 - 미국 (디트로이트 KAPP)	2015.2
15-009	주요 글로벌 완성차/벤더 맵핑조사 - 독일 (프랑크푸르트 KAPP)	2015.2
15-010	주요 글로벌 완성차/벤더 맵핑조사 - 일본 (나고야 KAPP)	2015.2
15-011	몽골 투자 가이드 2015	2015.2
15-012	코트라와 손잡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뚝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 수출성공사례)	2015.2
15-013	권역별 한류 활용 마케팅	2015.3
15-016	2014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	2015.4
15-017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Annual Report 2014	2015.4
15-018	SEOUL FOOD 2015 디렉토리	2015.5
15-019	외국인을 위한 법인설립 안내	2015.5
15-020	외국인투자가이드	2015.5
15-021	2014 KOTRA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15.5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5-001	2015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15.1
15-002	2015 글로벌 투자유치전략 설명회	2015.1
15-003	2015 주요 전략시장 긴급점검 설명회	2015.1
15-004	2015 달라지는 FTA환경과 우리기업 대응전략	2015.1
15-005	코트라 해외수주협의회 제 18차 수요포럼	2015.1
15-006	한류스타-중소기업 융합 해외마케팅 사업설명회	2015.1
15-007	강원도-외투기업 우량기업 투자마케팅 협력상담회	2015.3
15-008	한류스타-중소기업 융합 해외마케팅 설명회	2015.3
15-009	코트라 해외수주협의회 제 19차 수요포럼	2015.4
15-010	한중 FTA 활용방안 설명회	2015.4
15-011	2015 세계 주요시장 수출전략 설명회(지사화 전담직원 방한교육 연계)	2015.5
15-012	3中(중동,중남미,중국), 3戰(이란,멕시코,중국내륙) 시장 설명회	2015.5
15-013	Global Online Biz-Week Korea 2015 Business Forum	2015.5
15-014	인도 자동차부품 시장	2015.5
15-015	Global Project Plaza 2015	2015.6



작성자

◆ 파나마 무역관	이주성
◆ 과테말라 무역관	황선숙
◆ 통상지원총괄팀	김인태



Global Market Report 15-028

한-중미 FTA와 우리기업 진출기회

발 행 인 ■ 김재홍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5년 6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15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